



사회 >> 3면

비상계엄의 후폭풍, 환율 급등과 경제 위기를 부른다

기획 >> 4면

변화하는 학교에 맞춰 나아가는 학생 자치, 한빛 총학생회를 만나다

현장르포 >> 5면

국회 앞 생생한 집회 현장의 기록

제586호

2025년 2월 28일(금)

아슬아슬한 투표율 속 제53대 총학생회 '한빛' 출범



출처: 총학생회

지난 11월 18일(월)부터 11월 21일(목)까지 서경대학교를 이끌어 갈 2025학년도 학생회 선거가 진행됐다. 학우들은 총학생회 및 각 단과대·학과별 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 전 11월 12일(화)부터 11월 15일(금)까지 진행된 열띤 선거운동에도 불구하고 본 투표 4일 차, 전 단위가 투표율 50%를 넘지 못했다. 이에 제53대 서경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선거시행세칙 제35조에 의거해 중선관위 의결 결과 연장 투표 실시를 공지했다. 투표 참여 활성화를 위해 중선관위는 에어팟 맥스(1명), 배달의 민족 1만원 상품권(35명) 등의 경품을 걸고 선거 투표 독려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후 연장 투표 1일 차 11월 22일(금) 17시 30분 기준, 인문과학대학(50.41%)을 제외한 전 단위가 50%를 넘지 못했다.

2차 연장 투표까지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연장 투표일인 11월

25일(월) 17시 30분 기준, 총학생회(46.71%)를 비롯한 △이공대학(46.27%) △통합예술대학(42.39%) △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 중어전공(38.70%) △아동청소년학과(49.64%) △물류시스템공학과(49.19%) △소프트웨어학과(43.09%)의 개표 요건이 성사되지 않았다.

3차 연장 투표일인 11월 26일(화) 12시 기준 △총학생회(51.35%) △인문과학대학(50.68%) △사회과학대학(53.37%) △총동아리연합회(55.77%)를 제외한 △이공대학(49.41%) △통합예술대학(49.71%)이 50%를 넘기지 못했다.

이후, 17시 기준 전 단위 개표가 성사돼 11월 27일(수) 18시 15분, 청운관 701호 총학생회실에서 개표가 이뤄졌다. 개표 결과, △최종 득표율 52.61% △찬성 85.78%(2,081명) △반대 6.84%(166명) △기권 7.38%(179명)로 '한빛'이 당선됐다. 이에 중선관위는 11월 28일(목) 서경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44조에 의거해 당선 확정을 공고

했다.

선거 결과, 총학생회장엔 한기찬(금공 20), 부총학생회장엔 최창조(노어 20) 학우가 당선됐다. 이 외에 총학 구성원은 윤의찬(전자 20), 김윤서(불어 21), 정바다(불어 21), 최운조(비디 22), 심은교(아텍 23), 장해승(메디 23), 태웅재(군사 23) 학우다.

제53대 총학생회 한빛은 '한 걸음씩 나아가 우리의 빛나는 이야기'라는 슬로건과 함께 힘차게 출발했다. 한빛 총학생회는 취임사를 통해 "올해는 서경대학교가 변화를 맞이하는 해"라며 "찾아오는 변화를 통해 새로운 도전과 경험을 이용한 안정감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며 진화하는 학생 자치와 학교를 위해서는 학우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이 필연적"이라며 "의견 하나하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항상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김나연 기자

(nykim0409@skuniv.ac.kr)

파격적인 학사 구조 개편... 정시 모집서 어떤 변화 불러왔나?

서경대학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취지로 학사 구조 개편을 단행했다.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미래융합학부1, 미래융합학부2, 자유전공학부 3개의 모집 단위를 신설했다. 기존의 아트앤테크놀로지학과, 스포츠엔터테인먼트학과, 군사학과도 미래융합대학 소속이 됐다. 코스메틱&뷰티테라피학과는 코스메틱뷰티매니지먼트학과로 학과 명칭이 바뀌었다.

모집 단위와 수능 반영 방법에서도 조정이 이뤄졌다. 정시 모집에서 미래융합대학은 수능 100%로 선발해, 입학 후 전공을 선택하게 된다. 미래융합대학에서는 수능 70%+면접 20%+체력 10%로 선발하는 군사학과를 제외하고 모두 실기를 반영했다. 영어는 환산 점수를 활용하고, 나머지 과목은 백분위를 적용했다. 국어, 수학, 탐구 3개 영역 중 상위 2개 영역은 각 40%, 영어는 20%의 비중으로 반영했다. 탐구 영역은 2과목의 평균을 반영하고, 한국사는 가산했다.

1월 3일 정시 모집 원서 접수 마감 결과, 428명 모집에 5,190명이 지원해 평균 12.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3.06%p 올라 2025학년도 정시 모집 경쟁률에서 서울지역 4년제 대학 중 1위에 올라섰다. 실용음악학부 보컬전공은 5명 모집에 876명이 지원하며 175.20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다. 한편 신설된 미래융합학부1은 8.76대 1, 미래융합학부2는 8.15대 1, 자유전공학부는 12.12대 1을 기록했다.

김민채 수습기자

(minchaekim4063@skuniv.ac.kr)

사 령

2월 28일자로 아래 학우를 임·면합니다.

- ▶ 면 편집장 송민경 (노어 21)
- ▶ 면 정기자 유지우 (아동 20)
- ▶ 면 정기자 김경민 (불어 23)
- ▶ 면 정기자 전준혁 (광공 23)
- ▶ 면 수습기자 강예진 (광공 22)
- ▶ 면 수습기자 신가은 (경영 23)
- ▶ 면 수습기자 김소희 (소웨 22)
- ▶ 임 편집장 김나연 (아동 22)
- ▶ 임 부편집장 김민채 (금공 24)

C+ 이하 교과목 '학점포기제도' 시행...신청 대상 및 절차는?

1. 학점포기제 운영

대상 교과목	C+ 이하인 교과목	신청 학점수	학기당 3학점, 총 9학점 이내
대상 인원	5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 *단, 휴학생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제외		
제외 학점	- 반입학점으로 전적 대학에서 인정받은 학점 - 국제교과목(OCU 포함)은,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 - PASS/NO-PASS로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 - 교정일수 및 전공핵심 이수 교과목		
유의 사항	- 학점 포기한 교과목은 재수강할 수 없다. - 학점 포기한 교과목에 대하여 불합격이나 정정할 수 없다. * 모든 학과(부)의 적용시기는 2025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		

▲ 출처: 제52대 총학생회

2024학년도 2학기부터 학점포기 제도가 시행됐다. 작년 11월 서경대학교 제52대 한빛 총학생회는 공식 SNS를 통해 학점포기제도를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총학생회는 지난 9월 교무처와 간담회를 진행해 학점포기제도 시행을 논의했고, 10월 교무처 간담회 결과 보고를 통해 시행예정을 공지했다. 이후 세부 내용 조정 단계를 거쳐 11월 25일 학점포기제도 시행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본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학점포기제도 시행 공지에는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5학기 이상 등록 재학생으로, 휴학생 및 학사 학위 취득 유예자는 제외된다. 학기당 3학점 신청이 가능하며 졸업 전까지 최대 9학점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 시기에 이수 중인 과목은 제외된다. 학점포기 대상 교과목은 전 학기까지 이수한 교과목 중 취득 성적이 C+ 이하인 교과목이다. 그러나 C+ 이하인 교과목 중 학점포기가 불가능한 교과목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전공핵심 이수 교과목이거나 '패는 패(Pass/Non-Pass)'로 취득한 교과목 성적, 편입학생의 경우 전적 대


학에서 인정받은 학점, OCU(열린사이버대학)를 포함한 국내 교류 대학,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은 학점포기 제외 교과목에 해당한다. 학점포기를 원하는 학생은 학점포기원서를 작성한 뒤 성적증명서를 첨부해 교무과로 제출해야 한다.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평균 학점을 개선할 수 있다. 단, 학점을 포기한 교과목은 재수강이 불가하고, 이를 철회하거나 정정할 수 없다. 더불어 졸업 관련 학점이 부족하지 않도록 본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학점포기제도 시행 관련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학점포기제도 시행에 대해 소프트웨어학과 22학번 A 학우는 "학점포기제도를 이제야 도입한 게 아쉽긴 하지만, 지금에서야 도입한 것도 좋게 본다"며 "주변에 신청한 학우가 있었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강예진 수습기자

(jinrvd@skuniv.ac.kr)

사/랑/받/는/신/문/만/들/기
서경대신문사



대인판 출몰 아기 야옹이(4개월 추정)

냥냥, 함께 신문 만들래?

서경의 소식을 배달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따뜻한 연말을!”

서경대 풀잎봉사단, '사랑의 몰래산타 대작전' 성료



지난 12월 24일, 서경대학교 풀잎봉사단이 '사랑의 몰래산타 대작전' 봉사활동에 참여해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선사했다. 한국청소년재단이 주관한 본 행사는 매년 크리스마스이브에 소외계

층 아동·청소년 1004명의 가정에 방문해 선물을 전달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난해 19번째를 맞았다. 풀잎봉사단은 전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네 명의 봉사단원이 함께했다. 활동 전 12월 7일과 8일, 서대문청

소년센터에서 사전교육인 '산타 학교'가 진행됐다. 신청 지역별로 조가 형성돼 아이스 브레이킹을 통해 조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역할 분담 및 활동 주의사항 안내가 이어졌다. 'Must Have Love' 노래에 맞춰 율동 연습을 끝으로 사전교육은 마무리됐다. 안내를 토대로, 수혜가정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해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 정보를 전달받고 선물을 구매해 포장했다.

활동 당일 15시에는 모든 봉사자들이 상암 문화광장에 모여 산타복장과 선물 보따리를 수령했다. 출정식에서는 '뉴진스' '개그맨 윤성호의 디제잉이 신나는 분위기를 뿜었다. 단원들은 활동 지역인 노원구 월계동에 도착 후 최종 연습을 마치고, 총 6가정의 아이들 8명에게 선물 전달에 나섰다.

단원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고, 문이 열림과 동시에 음원을 틀어 연습했던 율동을 했다. 이후 뒤에 숨어있던 산타 역할 봉사자가 등장해, 아이들에게 장난과 함께 격려의 말을 전하며 선물을 건넸다. 부끄

러워 숨던 아이들도 선물을 받아 미소를 머금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봉사자들은 추운 날씨에도 밝은 웃음을 띠며 선물 전달을 모두 마쳤다.

봉사에 참여한 단원 윤다인(경영22) 학우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산타복사에 참여하게 돼 뿌듯했고, 뜻깊은 크리스마스이브를 보낸 것 같다”며, “어린이들이 선물을 받고 속스러워하면서도 기뻐하는 모습이 고마움을 표현하는 모습이 사랑스러웠다”고 말했다.

한편 풀잎봉사단은 지난해 노원구에서 진행한 연탄 나눔 봉사를 시작으로 성북구 대학교 기획봉사 프로젝트, 봄·겨울 건강 행사, 여름 보양식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사랑의 몰래산타 대작전'을 끝으로 올해의 모든 봉사를 마무리한 풀잎봉사단은 올해도 다양한 봉사를 펼칠 예정이다.

유지우 기자
(milkyway_85@naver.com)

‘엑셀부터 AI까지’... 서경대, 동계방학 실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진행

서경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진로취업지원센터(이하 대플)에서 2024학년도 동계방학 기간을 이용해 '컴퓨터활용능력 2급 실기 교육'과 '챗GPT 업무 자동화 교육'을 운영했다. 두 프로그램은 각각 5일 동안 하루 4시간씩 총 20시간에 걸쳐 실시됐으며, 컴퓨터 활용능력 2급 교육은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챗GPT 업무 자동화 교육은 1월 20일부터 24일까지 열렸다. 두 프로그램은 모두 유담관 L 층에 위치한 AR/VR실에서 대면으로 진행됐다.

먼저 컴퓨터활용능력 2급 과정에서는 △엑셀 서식 및 필터 △피벗 테이블 활용 △매크로 작성 △합수를 이용한 계산 작업 △기출문제 풀이 등의 내용을 다뤘다.

뒤를 이은 챗GPT 업무 자동화 교육에서는 △ChatGPT 개념과 특징 △효율적인 프롬프트 작성법 △엑셀 업무 자동화 적용 방안을 배웠다. 마지막 날인 5회차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싶은 개별 프로젝트를 설정한 후, 배운 내용을 토대로 작업하고 피드백 받는 시간을 가졌다.



▲ 출처 : 서경대학교 홈페이지

이번 교육을 맡은 이젠 아카데미 소속 정보화 교육 전담 강사는 “사무 환경에서 필수적인 프로그램들의 기능을 익힐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며 “특히 엑셀의 생산성 기능과 단축키 활용법을 익히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챗GPT 업무 자동화 교육을 수료한 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 영어전공 23학번 A 학생은 “엑셀은 사무직이나 인문·사회 계열 전공자에

게 필수적인데, ChatGPT와 접목해 배우니 더욱 쉽게 익힐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색할 필요 없이 ChatGPT를 나만의 맞춤형 선생님처럼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 실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경민 기자
(anna2467@skuniv.ac.kr)

〈스태이지 파이터〉로 증명한 ‘나’... 청춘을 춤추는 김상길 무용수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방영한 남자 무용수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Mnet 〈스태이지 파이터〉에 서경대학교 무용예술학부 한국무용 전공 3학년 김상길 학우와 1학년 조태운 학우가 출연했다. 4차 미션까지 참여한 김상길 학우를 만났다.

【학우 인터뷰】
- 김상길 (무용예술학부 21학번)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춤추는 사람, 김상길입니다.

Q. 한국무용은 본인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A. 한국무용은 '정제'의 느낌입니다. 스스로를 가라앉히고, 한 동작을 수백 번 반복하고, 몸 자체를 교정해야 하는 장르입니다. 제가 제 몸을 먼저 이해하면서 어떤 정서를 느낄 때 어떤 춤이 나오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나'입니다.

Q. 방송에서 화제가 된, 언더에서 퍼스트까지 올라간 계급 결정전 당시의 기분은.
A. 방송에 출연하며 가장 염두에 둔 건 '정준'에 대하는 자세였습니다. 한국 대학생들에게 어느 순간

'도전'이라는 것이 퇴색됐다고 느꼈습니다. (학생들이) 정서적인 틀에 자신을 가둬 놓기보다, 자신이 20대 이자 청춘이라는 것을 먼저 떠올렸으면 했습니다.

계급 결정전 당시 어느 계급이든 후회하지 않고, 도전하며 '정준'에 걸맞은 걸 보여주자 했기에 기쁘고 행복하기보다는 부담감이 컸습니다.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 자리에서 정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비록 무모할지라도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는 것이 맞는지 고민했습니다. 방송을 통해 '일단 저질러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안 하고 후회하는 건 다르니까요.

Q. 미션 중 '질주'를 콘셉트로 쇼트트랙 안무 창작을 하게 된 계기는. 어디서 영감을 받는지?
A. 이전 미션에서는 총을 쏘거나 텀블링을 하는 등 격한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쇼트트랙 안무는 보여드리지 않은 모습 중 '담백함'을 나타내고자 시도한 안무입니다.

영감을 받는 경로는 다양합니다. 소중한 서경대 학우들은 물론이고 스쳐 지나가는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일상에서 순수한 영감을 받으려 합



▲ 출처 : 김상길 학우 제공

니다. 의도적으로 연출된 예술보다는 원초적으로 느껴지는 것들, 지금 이 순간의 키보드 소리와 저를 바라보는 시선에서도 영감을 받습니다.

Q. 방송이 끝난 후 현재는? 캐스팅 제의도 들어오는지.
A. 방송 후에는 콘서트를 1순위로 두고 투어 중입니다. 최근 파주에서 진행했던 곧 출시될 브랜드의 광

고 디렉팅, 개인 앨범과 댄스 필름 작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캐스팅 제의도 있고 그 밖에도 안무 디렉팅, 드라마, 개인 레슨 등 다양한 제의가 들어옵니다.

Q. 방송 이후 달라진 마음가짐은.
A.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아직 일반인이지만 지지해 주시는 팬분들이 생기면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프로의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된 제가 과연 학생인지, 예술가인지, 아니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지 고민해 있었습니다.

깨달은 점은 '나는 20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20대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앞으로의 포부는.
A. 제 작품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았으면 합니다. 많은 청춘들이 저를 보고 무모해지고 싶어 하는, 동기부여가 되는 작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나연 기자
(nykim0130@skuniv.ac.kr)

서경대 미술동아리 미상, '나를 닮은 동물 2025 달력 일러스트 전시' 개최

서경대학교 미술동아리 미상이 '나를 닮은 동물 캐릭터와 한 달'이라는 주제로 2025 달력 일러스트 전시를 개최했다.

지난 12월 12일부터 24일까지 본교 학술정보관 9층 로비에서 열린 전시에서는 달마다 다채로운 방식으로 표현된 캐릭터들이 신선한

즐거움과 재미를 선사했다. 특히, 미상 미술동아리 부원들은 자신만의 개성과 창의력을 담은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나를 닮은 캐릭터를 완성했다.

전시에서는 '2025 소원 빌기 및 '2024 나쁜 기억 버리기' 이벤트도 진행됐다. 학우들은 2025년에 이루고 싶은 소원과 희망을 포스트잇에 적어 붙이며 서로의 바람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2024년에 있었던 나쁜 기억을 종이에 적어 구긴 후 박스에 넣으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전시를 관람한 소프트웨어학과 A 학우는 "본인을 투영한 듯한 동물 그림과 그 캐릭터들이 놓인 공간과 분위기가까지 섬세하게 그려져 있어 작품 속 세상에 빠질 수 있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번 전시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학우들이 한 해의 마무리와 시작을 준비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경험을 선사했다. 미상은 이번 전시를 계기로 앞으로도 학우들이 예술을 더욱더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할 전망이다.

김소희 수습기자
(paa328@skuniv.ac.kr)



한 눈에 보는 이슈

<h3>정치</h3> <p>비상계엄 이후 탄핵 국면 본격화, 정치적 혼란에 빠져</p>	<h3>경제</h3> <p>비상계엄의 후폭풍, 환율 급등과 경제 위기를 부른다</p>	<h3>사회</h3> <p>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돌아오지 못한 179명의 승객</p>	<h3>문화</h3> <p>탄핵 정국 속 연예인의 정치 발언... '표현의 자유' 두고 갑론을박 이어져</p>	<h3>연예</h3> <p>지드래곤, 8년 만의 월드투어... 韓 콘서트 티켓 초고속 매진</p>	<h3>스포츠</h3> <p>전북, 서울 제치고 '2036 하계 올림픽' 유치 후보지 최종 선정</p>
--	---	--	---	--	---

※ 자세한 내용은 사회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자세히 보는 이슈

비상계엄 이후 탄핵 국면 본격화, 정치적 혼란에 빠져

尹 대통령 탄핵심판 5대 쟁점		
국회 측	주요 쟁점	윤석열 대통령 측
헌법상 계엄 요건에 미해당	계엄 절차 적법성	행정·사법부 기능 마비 상황
'정치활동 금지' 등 위헌	포고령 1호 위헌 여부	집행 가능성 없는 형식적인 것
'의원 끌어내리' 지시	국회 활동 방해	질서유지 목적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중대한 헌법 위반	선관위 병력 투입 경위	전산 시스템·가동 점검
체포명단 진술 있어	정치인 체포 지시	체포 지시한 적 없어

▲ 출처: 한국경제

12월 1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 소추안이 여야 300명 전원 투표로 가결됐다. 탄핵소추결정이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즉시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됐다.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했다.

야당은 12월 24일까지 이른바 '쌍륙검법(내란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해 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권한대행은 두 법안의 공포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서 쌍륙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했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버리고 있던 민주당은 12월 26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 역할을 맡게 됐다.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 국정이 운영된 지 13일 만에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것이다.

한편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현정 사상 처음으로 체포됐다. 이후 1월 19일, 윤 대통령이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 역시 현정 사상 처음이다. 이날 오전 2시 50분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전 3시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윤

대통령 지지자 수백명이 서울서부지법을 향해 몰려들었다. 지지자들은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고, 빼앗은 방패로 경찰을 폭행하기도 했다. 법원 건물의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침입한 이들은 난동을 부리며 사무실 내 각종 집기와 청사 외벽도 파손했다. 아수라장의 현상이 실시간으로 전파됐다.

1월 21일 오후 2시 현재 대법원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12·3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을 끌어내리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조사 요청에 잇따라 불응하면서 공수처는 1월 23일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기소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관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요

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1월 2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짐에 따라 정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여야간 정쟁이 격화되면서 경제적 불안해사, 민생 안정 등 시급한 현안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실질적인 정책 논의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비판이다.

탄핵 국면이 장기화되고, 사회 전반에 걸쳐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은 누적되는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적 갈등의 악순환을 끊고, 뒷전으로 밀려난 민생의 안정과 국민들의 안정된 생활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송민경 기자 (tilldawn012@skuniv.ac.kr)

비상계엄의 후폭풍, 환율 급등과 경제 위기를 부른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따라 시장엔 큰 파장이 일었다. 환율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22시 25분 직후 급등했다. 12월 4일 00시 20분에는 달러 환율이 1,442원까지 급등했으며 00시 26분에는 1,446.5원을 기록했다. 이 수치는 2009년 3월 1,488원의 기록 이후 15년 8개월 만에 최고치였다. 전날 종가하루 거래가 끝날 때의 달러당 원화의 마지막 가격인 1,402.9원 대비 40.6원이 상승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가 12월 4일 이시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환율은 다소 안정세를 보였다. 01시 36분에는 1,421.50원으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전날 종가 대비 약 20원이 높은 상태를 유지했다. 12월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서 환율은 1,419.10원에서 1,347원으로 급락했다.

12월 15일, 윤 대통령이 현정 사상 최초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되었지만, 시장의 반응은 미미했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02% 하락에 그쳤으며, 원·달러 환율은 2원 하락한 1,461.10원으로 마감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장 반응이 비상계엄 이후 지속된 정치적 불안정성이 이미 시장 가격에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참고: 뉴시스]

반면, 12월 26일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사태는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환율은 1,456.40원에서 1,464.80원으로 상승했다.

국내의 주식시장 또한 큰 하락세를 보였다. 뉴욕 증권시장에 등록된 MSCI South Korea ETF(상장지수 펀드)는 계엄 선포 초기 7%나 급락했으며, 이후 2.28% 하락으로 마감했다. 국내 코스피 200 야간선물물



선 지수(코스피 200)의 선물·옵션이 밤 시간대에 거래된 결과 역시 초기 5% 이상 급락했다.

가상 자산시장도 큰 충격을 받았다. 국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계엄 발표 이후 급락해 8,800만 원대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이후 완화된 12월 4일 04시 기준 1억 3,200만 원대까지 거래됐다.

비상계엄 사태와 외환시장 불안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존 1.9%로 예상했던 성장률을 1.6~1.7%까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실질 GDP(국내총생산)는 약 4조 5,840억 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기존 예상치인 0.5%를 밑돌아 0.2%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4분기와 올해 연간 GDP 감소액은 합산 약 6조 3,01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내의 시장에 충격을 주며 환율과 경제지표의 변동성을 키웠다. 이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 서 향후 시장 흐름과 성장률 회복 여

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세계 경제 환경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 인터뷰]
- 김나래 (30세)

Q. 환율 변동에 체감하시나요?
A. 환율은 워낙 자주 바뀌니까 그동안은 여행을 가더라도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이번에는 환율 변동 폭이 크다 보니 신경 쓰게 됐어요. 특히 최근에 계획했던 여행국이 아시아 물가 1위인 싱가포르라 더 걱정됐죠. 비상계엄 후 SNS에서 "환율이 급상승할 테니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환전하는 것을 권유한다"는 글을 보고 불안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트래블 웰트 카드'를 사용해서, 생각했던 것만큼 크게 영향을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해외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제가 원할 때 회화를 충전할 수 있어서 무조건 환전을 해야 했던 과거에 비해서 환율이 불안정해도 타격을 덜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김나연 기자 (nykim0130@skuniv.ac.kr)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돌아오지 못한 179명의 승객

지난 12월 29일, 전라남도 무안군에 위치한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콘크리트 둔덕에 부딪혀 폭발했다. 이 사고로 인해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사망했고, 항공기 뒤편에 있던 승무원 2명만이 구조돼 생존했다.

폭발한 여객기 7C2216편은 오전 1시 30분쯤 방곡에서 출발해 무안국제공항에 오전 8시 30분쯤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착륙 직전 관제탑으로부터 조류 충돌을 주의하라는 경고를 받았지만, 여객기는 그로부터 1분이 채 지나지 않아 추락했다. 항공기는 랜딩기어가 고장난 상태에서 동체착륙을 시도했지만, 외벽에 충돌해 기체 대부분이 화염에 휩싸이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구조대가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검은 연기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사고 직후 공항 소방대가 즉각 출동했지만 연

기에 막혀 초기 진압에 난항을 겪었다. 사고 현장에서 구조된 승무원원은 "한쪽 엔진에서 연기가 난 후 폭발했다"고 증언했다.

소방 당국과 국제교통부는 다양한 원인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원인 규명에 집중하고 있다. 조류 충돌(Bird Strike)로 인한 엔진 고장 가능성, 항공기의 구조적 결함 그리고 공항의 구조적 문제 등 많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무안국제공항의 위치와 환경적 요인이 비극을 막지 못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한다. 공항이 위치한 곳 주변에는 총 4개의 철새 도래지가 자리하고 있으며 조류 충돌 발생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을 계속해서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철새도래지 근처 공항 운영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

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항별 조류 충돌 예방 활동 인원 및 장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무안 공항은 전국 14개 공항 중 조류 퇴치 전담 인력과 장비 등이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타 공항보다 철새의 출몰이 빈번했지만, 조류 충돌 예방은 평장미 미흡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참사를 계기로 새 폐쇄 리어에서 둔덕에 부딪히기까지 가장 두려웠을 기장의 현신과 희생이 시민들의 마음에 깊게 자리 잡았다. 무고하게 희생된 179명의 죽음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이번 참사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희생자들의 이름과 희생자 수가 단순한 통계로만 남겨지지 않도록 항공 안전 관리 체계를 견고히 확립해야 한다."

하지만 조류 충돌만이 이번 사고의 원인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항공 전문가들은 항공기의 구조적 결함과 더불어 공항 관제 문제 등 다른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전 미국 연방 교통위원회(NTSB) 위원장인 로버트 섬윌트는 12월 29일 조선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조류 충돌이 하나의 원인일 수는 있지만 결정적 원인인지 어렵다

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단순한 사고로 끝나지 않았다. 역대 국내 항공기 사고로 3번째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으며, 많은 유가족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기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승객들을 살리기 위해 조종대를 놓지 않았다. 맨 앞자리에서 둔덕에 부딪히기까지 가장 두려웠을 기장의 현신과 희생이 시민들의 마음에 깊게 자리 잡았다. 무고하게 희생된 179명의 죽음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이번 참사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희생자들의 이름과 희생자 수가 단순한 통계로만 남겨지지 않도록 항공 안전 관리 체계를 견고히 확립해야 한다.

김소희 수습기자 (paa3228@skuniv.ac.kr)

탄핵 정국 속 연예인의 정치 발언... '표현의 자유' 두고 갑론을박 이어져



▲ 출처: 임영웅 SNS, SNS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의 여파가 정치권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며, 이에 대한 연예인들의 엇갈린 입장이 주목받고 있다. 과거와 달리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분위기에 이들의 행보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그중 탄핵을 지지하는 연예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표출했다. 가수 이승환은 지난 12월 13일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탄핵 촛불 문화제 무대에 올랐다. 가수 아이유는 당과 카페에 선결제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배우 고아성은 SNS에 "한국이 싫어서 X, 한국을 구해야 해서 O"라는 글과 함께 집회로 향하는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다. 단순히 팬들을 응원하는 것을 넘어 탄핵 추구의 의미를 담은 행동이었다.

가수 이채연은 연예인이 정치적 견해를 내보이는 것을 우려한 팬들

의 반응에 대해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알아서 할게. 언급도 내가 알아서 할게. 연예인이니까 목소리 내는 거지. 우리 더 나은 세상에서 살자. 그런 세상에서 우리 맘껏 사랑하자"고 답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연예인은 작은 발언 하나에도 이미지가 뒤 바뀌는 만큼, 그의 소신 발언은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줬다. 이 외에도 다수의 연예인들이 자신의 SNS를 통해 현 사태에 대해 비판했다.

반면,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는 연예인들도 있었다. 가수 임영웅은 당과 카페에 선결제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배우 고아성은 SNS에 "한국이 싫어서 X, 한국을 구해야 해서 O"라는 글과 함께 집회로 향하는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다. 단순히 팬들을 응원하는 것을 넘어 탄핵 추구의 의미를 담은 행동이었다.

가수 이채연은 연예인이 정치적 견해를 내보이는 것을 우려한 팬들

한편 '서울의 봄', '남산의 부장들' 등 현대사를 다룬 작품에 출연한 배우들에게 현 시국에 대한 입장을 밝히려는 누리꾼들의 압박이 가해졌다. 이에 "아픈 역사를 단순히 이용하기만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과 "배우는 배역을 연기할 뿐, 이는 과도한 검열"이라는 반론이 맞섰다.

탄핵 정국 속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하는 연예인들에게도 비판이 일었다. 추운 날씨에도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탄핵을 외치는 가운데, 연예인들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시상식에 참석하며 그들과 다른 세계에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연예인들의 사회적 책임이 재조명되고 있다. 일부 보수 성향의 커뮤니티에선 '빨갱이 명단'을 만들어 불매운동과 함께 그들을 CIA에 신고하는 움직임까지 나타났다. 정치적 견해를 표명했을 뿐인데 공격의 대상이 되면서, 사상 검증의 형태로 변질되는 것은 폭력적인 방식이 아닐지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연예인은 공인으로 봐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재차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들의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정치적 입장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견이 엇갈린다. 그러나 연예인은 하나의 개인으로 본다면 어디까지나 그들의 선택일 뿐, 입장을 강요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 분노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연예인이 아닌 내란 정국을 초래한 주범에게 화살을 돌려야 한다.

신가는 수습기자 (yulyull1214@skuniv.ac.kr)



▲ 출처: MBC뉴스

변화하는 학교, 그에 맞춰 나아가는 학생자치

한빛 총학생회를 만나다

서경대학교 제53대 총학생회 '한빛'의 임기가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됨으로써 2025년 1월 1일부터 제53대 총학생회 '한빛'의 임기가 시작됐다. 한빛 총학생회는 "한 걸음씩 나아갈 우리들의 빛나는 이야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취임사와 함께 당찬 포부를 내보였다.

서경대학교 제53대 총학생회 선거에는 4,611명의 유권자 중 2,426명이 투표에 참

여하며 52.6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 중 85.78%가 찬성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경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시행세칙 제43조에 의거해 한빛의 당선을 공고했다. 투표 진행 중 2차 연장투표에도 개표 요건이 성사되지 않은 단위가 있어 3차 연장투표까지 진행하기도 했으나 무사히 선거가 마무리됐다.

새롭게 출범한 '한빛' 총학생회는 총학생

회장 한기찬(금융정보공학과 20)과 부학생회장 최창조(국제비즈니스어학부 노어전공 20), 정책기획국장 윤의찬(전자공학과 20), 사무국장 김윤서(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 불어전공 21), 복지국장 심은교(아트앤테크놀로지학과 23), 운영집행국장 장해승(메이컴퓨터학과 23), 졸업준비국장 태웅재(군사학과 23), 대외협력국장 정바다(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 불어전공 21), 홍보국장 최은

조(디자인학부 비주얼디자인전공 22)로 구성된다.

이번 한빛 총학생회는 학점포기제 도입, 정기 체육 리그, 버스 밀집 현상 개선, 학사 구조 개편 이후 학사 요구 사항 이행, 학생복지시설 노후화 개선, 전체 학생 대상 MT, 미래융합대학 전공 선택 관련 프로그램 시행,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정기 보고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학교 내

많은 개편이 이루어진 이후 당선됐기에 앞으로 공약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은 "서경대학교의 발전과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빠른 노력을 다할 각오로 함께 결의해 출사표를 내던졌다"며 "학우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학우들의 행복을 위해 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학우들의 믿음을 원

동력 삼아 올 한 해 학우들을 위해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맞이한 2025년, 올 한 해를 이끌 한빛 총학생회를 만났다. 이번 서경대신문 586호 특집 기획에서 그들의 진실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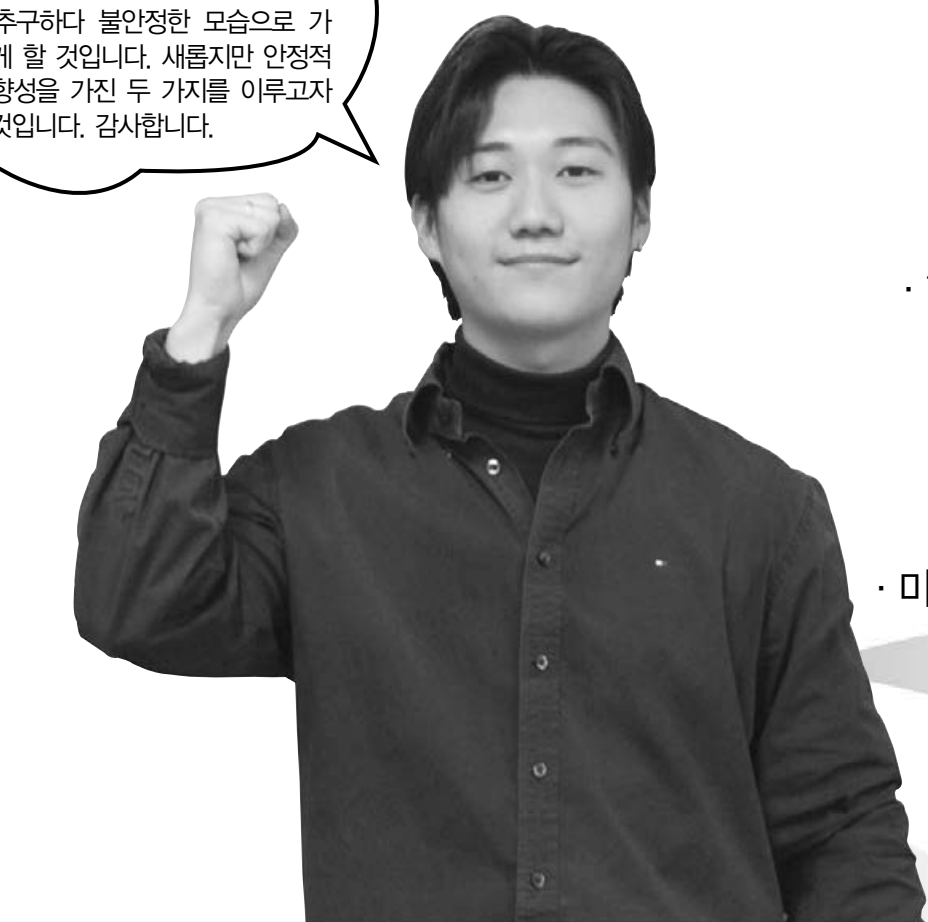
새롭게 변하는 모습이 많은 만큼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텐데 변화 속에서 새로움을 찾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적응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울만을 추구하다 불안정한 모습으로 가지는 않게 할 것입니다. 새롭지만 안정적인 양방향성을 가진 두 가지를 이루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걸음씩 나아갈 우리들의 빛나는 이야기' 저희 한빛 총학생회의 슬로건입니다. 저희 한빛은 학우분들 모두가 서경대학교를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성장하는 한 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로 나아가는 청년의 위대한 걸음을 열과 성을 다해 돕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믿고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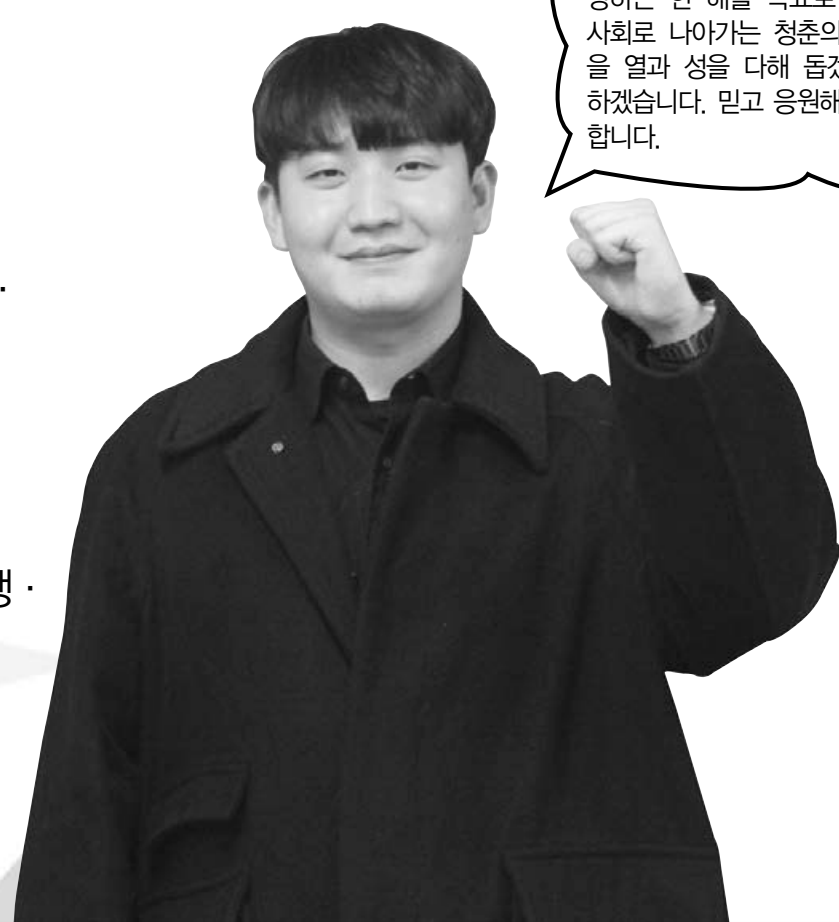
한걸음씩 나아갈 우리들의 빛나는 이야기

주요공약

- 학사구조 개편 이후 학생 요구 사항 이행 ·
- 학생복지시설 노후화 개선 ·
- 전체 학생 대상 MT ·
- 버스 밀집 현상 개선 ·
- 미래융합대학 전공 선택 관련 프로그램 시행 ·
- 학점포기제 도입 ·
- 정기 체육 리그 ·
-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정기 보고 ·



회장 한기찬



부회장 최창조

1.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경대학교 제53대 한빛 총학생회 학생회장 금융정보공학과 20학번 한기찬, 부학생회장 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 노어전공 20학번 최창조입니다.

2. 총학생회 임원, 단과대학 학생회 경력이 있으신데, 또다시 총학생회 회장단에 입후보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한기찬: 2023학년도부터 총학생회에 소속돼 국장직을 맡아오면서, 많은 행사를 다뤄왔습니다. 2년간 관리자로서 한 발짝 뒤에서 행사를 지켜보면서 학우분들이 추억을 쌓아가며 즐겁고 행복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지켜보다 보니 저도 학생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총학생회를 꾸려보고 싶다는 생각에 입후보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최창조: 인문대학 수습 부원으로 출발해 정책국장을 거쳐 지금의 회장단에 이르기까지, 인문과대학 학생회에서 약 4년간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제는 더 큰 조직에서 오로지 서경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새롭게 힘써보고 싶다는 생각에 총학생회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비교적 익숙하지 않은 일이고 어려움도 많겠지만 열정으로 극복하자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부총학생회장직에 임하고 있습니다.

3. 전대 총학생회의 활동 중 아쉬운 점이나, 본받고 싶은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전대 총학생회 활동은 학교 본부와의 소통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옆에서 꾸준히 지켜보며 느낀 바로는 일 처리와 추진력 부분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 총학생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전대 총학생회의 이런 점을 본받고 싶습니다.

4.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공약은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저희는 모든 공약이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를 믿고 투표해 주신 학우 여러분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모든 공약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소중하게 이행할 생각입니다.

5. 학사 구조 개편 이후 학생 요구 사항을 이행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계획인지, 그중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작년 학우 여러분들이 요청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학교 본부에 요구했습니다. 별개로 학교 본부가 한 약속들을 이행하려 노력하고 있는지 지속해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기존 학우들의 학습권 및 커리큘럼 보장 관련 요구사항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 올해 미래융합대학이 새롭게 편성됨에 따라, 많은 학생이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학생회로서 커리큘럼, 대학 생활 등 기존 재학생과 신입생의 간극을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새롭게 입학하는 미래융합대학 1학년 학우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은 물론이거니와, 기존 단과대학 학우들과의 원활한 교류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학교 측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선후배 간의 교류가 끊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7. '정기 체육 리그'는 어떤 모습으로 구상하고 계시는지, 청야체전과 다르다면 무엇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정기 체육 리그는 먼저 타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내 리그전들을 비교 분석하며 현재 구상 중입니다. 기존에 학과 단위로 모집하던 출전팀을 학과 구분 없이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 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청야체전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리그 형식의 경기가 열릴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8. 학생들의 지속적인 셔틀버스 재운행 요구가 학교 측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버스 밀집 현상은 어떻게 개선하실 계획인가요?

셔틀버스 재운행을 요구하는 동시에 버스 밀집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로는 추가 배차, 버스 노선 변경 등의 아이디어로 유관기관들과 꾸준히 상의하고 있습니다.

9. 학생 복지 증진을 위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놓은 학생복지시설 개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우분들이 꾸준히 요구하시는 와이파이 개선과 더불어 생활관 환경 개선도 이미 학교 측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며, 추후 설문을 통해 이외의 요구사항도 종합하여 요구할 예정입니다. 학우 여러분들이 학교생활을 하며 불편하거나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 언제든지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의견을 취합해 학교 측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0. 학생 학업 증진을 위해 토익·토스 등의 공인 영어 시험 제휴 생각이 있으신가요?

물론입니다. 학우들을 위한 행사를 기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본분은 학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학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인 영어 시험 관련 제휴 등의 공약들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간칼럼



2025년,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

2025년,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얼마 전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서울시 매력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서울시 매력일자리 사업은 서울시가 지원하는 민간 전문 일자리 지원사업이다. 청년 대상 '매일같이 경력을 쌓자'라는 슬로건 하에 인턴십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정규직까지 연계하는 취업 매칭 사업이다. 올곧게 가는 것은 제안자들의 디지털 프로그램 강화였다. 산업체의 수요가 그만큼 디지털 시대의 인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소통하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고 분석하여 결과물을 도출하는 디지털 역량을 향상해야 한다.

기술의 발전은 가속화되고, 사회

적 가치와 문화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매년 발표되는 '2025 트렌드코리아'와 같은 연구 자료들은 우리가 시대를 어떻게 대비하고 무엇을 구축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되는 것은 디지털 기술의 진화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강조이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을 넘어서, 기술이 개인의 삶과 공동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시점에서 있다.

최근 중국의 딥시크가 발표되면서 디지털 네이티브의 진화가 주목된다. 디지털 네이티브란, 어렸을 때부터 디지털 기술에 익숙한 세대를 뜻한다. 이들은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과 함께 자라며, 기술의 발전과 함께 성장했다. 그러나 2025년에는 디지털 네이티브의

념이 한층 더 확장될 것이다. 단순히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기술을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그리고 그 기술이 인간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하는 능력이 중요해질 것이다. 기술이 단순히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과 사회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기술을 능숙하게 다루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기술의 사회적 책임은 무엇인지

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또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로 다가왔다. 환경 보호는 더이상 개인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모든 세대와 사회의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

다. 특히 대학생들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을 고민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단순히 환경 보호에 그치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균형 잡힌 발전을 의미한다. 즉,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지속 가능한 소비와 에너지 절약, 재활용 등의 실천을 일상 속에서 이어나가야 한다.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정신 건강 문제도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또한,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사회적 불평등과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정신 건강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불평등 해소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도 진정성 있는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적 진보와 사회적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개인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우리는 이제 기술을 사용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체로서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공동의 과제이다. 2025년,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

주간 방미영 교수

| 기자의 눈 |

나 홀로 떠나는 여행

지난 1월, 대학교 마지막 방학 겸 졸업여행을 맞아 나 홀로 일본 여행을 떠났다. 이전부터 혼자 여행을 떠나 보고 싶었지만, 여건이 되지 않아 가지 못하게 된 경우가 다반사였다. 시간도, 돈도, 마음의 여유도 있는 지금이 혼자만의 여행을 떠나기 최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행 장소는 일본 나고야. 일본의 다른 유명 도시들과 다르게 관광객들이 비교적 적고 현지 분위기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곳이다.

현지 도착 후 호텔에 체크인하기부터 쉽지 않았다. 이심(6SIM) 오류로 데이터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시간이 걸렸고, 역까지 가는 표를 잘 못 구매하기도 했다. 이래저래 정신이 없는 와중에 현지인들의 도움은

큰 힘이 됐다. 역무원들은 잘못 산 표를 환불해 주며 친절하게 길을 안내했고, 호텔 직원은 편의시설을 하나 하나 소개해 주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물으라고 말했다. 여객기에서 떨어지는 달리 현지인들의 작은 도움 하나하나가 더욱 따뜻하게 느껴졌다.

예상치 못한 계획의 변화를 즐기는 것도 혼자 하는 여행의 묘미였다. 오스 상점가를 둘러보고 저널 식사를 하러 했던 본래의 계획과 달리 쇼퍼 후 시간이 많이 남자. 근처에 있는 나고야시 과학관으로 향했다. 과학 분야별로 전시나 체험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어 볼거리가 가득했고, 야경이 좋았다. 다니는 아기를 구경하며 소소한 행복을 즐기기도 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냥 즐기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셋째 날 일루미네이션을 보기 위해 인근 소도시인 나가사키에 있는 '나바나노사토'로 향했다. 입장권과 지하철-버스 환승권이 있는 패키지를 구매했으나, 돌아올 때 탄 버스는 알고 보니 지하철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속서비스였다.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어 중간에 내릴 수도 없고, 현금도 없어 금액을 낼 수도 없었다. 내릴 때 버스 기사에게 근처 ATM 기계에서 표 금액만큼의 값을 인출해 오겠다고 하자, 기사는 '이번에는 그냥 가도 좋다'며 미소를 지었다. 감사한 마음 반, 죄송한 마음 반이 들며, 해외에서는 무엇이든 여러 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겠다고 다짐했다.

'미식의 도시'라고 불리는 나고야는 맛있는 음식이 가득하다. 나고야의 카페는 아침에 커피를 주문하면 토스트를 서비스로 주는 모닝 세트가 있다. 두툼한 토스트에 딸기잼, 딸소의 조화가 훌륭해 이를 연속 방문했다. 이 외에도 미소 된장 속서비스였다.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어 중간에 내릴 수도 없고, 현금도 없어 금액을 낼 수도 없었다. 내릴 때 버스 기사에게 근처 ATM 기계에서 표 금액만큼의 값을 인출해 오겠다고 하자, 기사는 '이번에는 그냥 가도 좋다'며 미소를 지었다. 감사한 마음 반, 죄송한 마음 반이 들며, 해외에서는 무엇이든 여러 번

있을 정도다.

첫날 본 호텔 직원과의 인사를 끝으로, 첫 '혼여'가 마무리됐다. 혼자 하는 여행을 꾸준히 즐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정도로 세롭고도 알찬 여행이었다. 예상치 못한 변수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익히고 작은 도움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 혼자만의 자유로운 여행이 주는 즐거움을 알게 됐기에,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혼여'를 떠날 것이다.

유지우 기자

(milkyway_85@naver.com)

| 기자의 눈 |

마음 한 구석에 작별을 품고 살아가기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불완전성에 기인하며 삶은 불확실성의 연속이다. 그러기에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특정하고, 삶의 의미를 정의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부단히 노력한다. 다만 삶에 대한 고찰은 끝없는 물음표와 도돌이표로 이어지며, 미래에 대한 예측은 번번이 빗나간다. 그저 영원한 것은 없고 모든 것은 필멸한다는 사실만이 있을 뿐이다.

씩가모니는 '회자정리'라는 말을 남겼다. 만남 이후엔 헤어짐이 동반된다는 삶의 진리가 담긴 말이다.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다정한 사람, 기막힌 우연, 심연의 우물, 지나가는 고양이, 주머니 속 지폐.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으므로 그 모든 것들은 찾아옴과 동시에 떠난다. 우리에게 잠시 머문 후, 차량 밖의 풍경처럼

자나간다. 순식간에, 기별 없이, 예상치 못하게, 영영.

우리는 인사를 건넨다. 뒤돌아가는 당신의 등 뒤에서, 다 쓴 노트를 정의하며, 저물어가는 태양을 향해서, 하지만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건네는 인사는 몇이나 될까? 우리는 은연중 언젠가 다시 만날 희망을 품고, 안일하게 인사를 건네는 걸 수도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 인사가 마지막 인사였음을 깨달으면, 후회한다. 그 마지막은 후회 속에 남아 기억된다. 처음만큼이나, 혹은 더욱 마지막을 선명하게 기억하는 것은 이런 이유가 아닐까. 의식하지 못하는 시작, 그 끝에 미련이 똑똑 묻어내는 마지막이 있다. 무엇이 되었든 마지막은 마음을 울리게 한다. 그래서 마지막 인사에 '작별'이란 칭호가 붙었나 보다. 첫 인사에는 특별한 별호가 없다.

시작이 예고 없이 벌어지듯 마지막도 예측할 수 없다. 뒤돌아가는 저 사람을 앞으로의 인생에서 다시는 마주할 일 없을지 모른다. 당신이 자주 가던 단골 식당은 당장 다음 날 문을 닫을 수 있다. 오늘 아침 이부자라에서 눈을 떠 마주한 아침이 당신의 마지막 아침일 수 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에 마지막이란 전제가 붙으면 그 의미는 달라진다. 하지만 일상의 우리는 마지막이란 단어가 괄호를 쳐두고 애써 무시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본다. 익숙함에 의해 무감각해진 우리는 쉽게 우리 주변의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패착을 저지른다. 하지만 우리를 이루는 모든 것에 마지막이 있고 그 마지막은 무조건 당신에게 당도할 것이다.

언젠가 찾아올 작별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산다. 마지막일 수도 있

다는 생각을 자꾸만 되새긴다. 비판적으로 되란 말은 아니다. 마지막을 염두에 둔다면 오히려,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모하게 된다. 눈앞에 있는 사람과의 대화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면 저절로 마음을 배풀게 될 것이고, 당신이 느끼는 즐거움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면 후회 없이 충분히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볼 부모님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게 되고, 서툰했던 감정 표현에 용기가 생기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골백번은 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에 쳐둔 괄호를 지우고 작별을 생각해 보자. 마지막 하루, 마지막 만남, 마지막 노래, 마지막 식사, 아쉬움이 느껴지는 동시에 모두 소중한데고 감사하게 된다. 순간의 감정, 찰나의 지나침, 우연한 운, 무난한 나날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

을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하지 않고 특별해지며, 이 특별함을 향유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된다.

이 글과 신문 앞에도 마지막을 덧 붙이니 의미가 남다르다. 똑같은 문구를 수십 번 바꿔가며 한결 나은 글을 쓰기 위해 정진한다. 다만 미천한 솜씨 때문에 전하고자 한 바가 전해졌는지 오리무중이다. 하지만 유한한 시간이, 결국 찾아온 마지막 이나에게 그만 놓아줘야 할 때라고 속삭인다. 아쉬움이 남지 않는다면 거짓이지만, 끊임없이 마지막을 되뇌니 후련히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내 마지막 글과 신문에다 작별 인사를 고한다.

전준혁 기자

(nicejackkyhu@naver.com)

| 수습의 눈 |

전통적인 틀을 깬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의 빛을 보기 위해 수반되는 노력

과거 젊은 세대들은 안정감과 안락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2025년을 살아가는 2030 세대는 어떻게? 그들은 전에 보지 못했던 열정과 세상을 변화시킬 기발한 아이디어와 함께 변화를 끌어내고 있다. 높아지는 조기 퇴사율과 SNS를 활용한 활발한 자기 PR 등은 과거 세대들에게 놀라움을 주며 현재에 안주하지 않으려는 젊은 세대들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들이 삶을 대하는 방식은 어떻게? 젊은 세대는 빠르게 흘러가는 사회 속 어디로 필지 모르는 축구공 같다. 긴박하게 진행되는 경기 속 어디로 필지 모르는 공은 선수들의

컨트롤 아래 골대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굴러가는 축구공은 젊은 세대의 자유성과 그들의 가치관을 동시에 나타낸다. 그들은 굴러가며 맞이하는 장애물을 자기 성장의 수단으로 이용하며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다. 하지만 자신과 회생을 통해 골대로 나아간 과거 세대들은 이를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들의 소비 습관과 일을 대하는 태도 역시 과거 세대들의 반감을 사기도 한다. 다양한 경험에 더 큰 가치를 두는 젊은 세대들은 미래에 대한 투자 대신 일시적인 즐거움을 위해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

이다. 또한 여가생활을 중시하며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그들의 태도는 과거 세대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 주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대통령 탄핵 촉구 시위에서의 청년들의 대치는 기성세대들의 부정적 인식과 달리 좋은 평가를 받는다. 촛불집회를 보고 자란 어린이들이 응원봉을 들고 밖으로 나가 시위를 하는 장면은 모든 세대에게 강한 울림을 줬다. 이 외에도 북한의 선동에 동조하는 현상들을 우려하는 등 다양한 정치·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그들이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을 보여준다.

이러한 노력이 헛되지 않으려면 변화한 젊은 세대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현세대가 추구하는 가치에 몰두하지 않아야 한다. 과도한 몰두는 SNS를 통해 보이는 것에 대한 집착, 명품 소비로 인한 빈곤 등의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기존 세대들의 조언과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적절히 조화시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성숙한 어른이 되기를 바라는 바다.

미래 후손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과거 세대들과 현재 젊은 세대들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사회적 책임이 따르고 과거 세대들은 젊은 세대들의 선택에 대한 존중의 자세를 지니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이 잘 이뤄지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 존중과 이해와 함께 서로에 대한 연대를 강화해 현재 당면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절실할 필요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김민재 수습기자

(minchaekim4063@skuniv.ac.kr)

* 퇴임편집장의 변

언제나 진심이였음

안녕하십니까, 발로 뛰는 지성 언론 서경대학교 신문사 제68대 편집장 송민경입니다. 편집장으로서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대학 생활의 전부였던 신문사를 뒤로하고, 586호를 끝으로 서경대신문을 내려놓을까 합니다.

7학기 동안 555호부터 586호까지 32호를 발행하는 데 참여했고, 총 34명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외에도 신문사 기자로서 수십 명이 넘는 분들을 만나 뵈게 되면서 맺은 인연들이 많습니다. 신문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닿지 못할 인연들이기에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아울러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를 통해 수많은 대학 언론인과 교류하며 저를 비롯한 본지가 마주한 한계를 인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저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이유는 단지 서경대신문이었지요. 머리를 쥐어뜯느라 뜯느로 날을 새기 일쑤에, 폭 잠들었던 날이 손에 꼽습니다. 그럼에도 여태 작성한 기사 중에서 완전무결하게 제 마음에 드는 기사가 단 한 개도 없다는 사실이 아쉬울 뿐입니다. 이렇듯 부족한 편집장임에도 한 해 동안 저를 믿고 따라와 준 서경대신문 기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서경대신문을 떠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6명의 기자와 새롭게 서경대신문을 채워 나갈 3명의 기자에게 무한한 응원을 보냅니다. 특히 차기 편집장인 제69대 김나연 편집장님을 복돋아 주고 싶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함께 보냈던 숱한 날들이 오롯이 남아 있을 테니 마주한 어려움을 잘 헤쳐 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사다난한 시절을 함께했으니까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편집장을 맡게 된 제69대 김민재 부편집장님께도 격려의 말을 보냅니다. 더불어 한 해 동안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던 김나연·유지우 기자님, 수려한 글솜씨를 가진 김경민·전준혁 기자님, 성실한 강예진·신가은·김소희 수습기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해는 단순 나열만 해도 벅할 정도로 유례없는 일들이 가득했습니다. 말 그대로 공사다망한 날들이 이어지면서 일어서기 무섭게 또다시 무너지기도 여러 번,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이었지만 끝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렇게 영영 지나가지 않을 듯했던 시간도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참 많이도 신세를 졌습니다. 비쭈비쭈 새어나오는 울음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애정을 담백 담은 만큼 힘이 들었습니다. 온 마음을 쏟아 부지런히 듣고, 읽고, 쓰고, 말하는 기자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버텨 온 한 해였습니다. 제게 주어졌던 지면에 그저 감사한 마음입니다.

현재 대학 언론이 마주한 위기는 물론이거니와, 서경대 신문사 역시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독자 여러분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앞으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면의 뒤에서 고생해 주시는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송민경 기자였습니다.

송민경

* 신입편집장의 변

어쩌다 보니 이 글을 쓰게 되는 날도 오네요.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가는 와중에도 아직 열렬했지만 합니다.

코로나 시절에 입학해 접했던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생의 눈에는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투성이였습니다. 교내 신문은 학생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소통 창구기에, 학교 발전을 위한 학생들의 의견을 널리 알리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신문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학업과 병행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학교를 변화시키고 싶다는 거창한 목표로 들어왔음에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 신문에 남아있는 이유도 빛이 바래 변질되더군요. 신문에 몸담은 지도 2년이 다 돼가자, 저의 소속 이유는 이곳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과 넓고 안락한 신문사일이 돼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별 거창하지도 않은 그런 이유로 남아있다고 비웃겠지만, 저는 저에게 이런 이유로라도 남아 있으니 대견하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거창한 목표가 없으면 뭐 어떨습니까? 우리는 아직 대학생인데요, 실수가 용납되는 때일 때 해보고 싶은 것은 모두 해 보고, 후회 없는 대학 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신문사에 있으며 그 덕에 어디서도 해보지 못한 다양하고 가치 있는 경험을 참 많이 했구나 싶습니다. 연합 취재로 제주도에 가본 것, 마음 맞는 동기 기자와 공모전에 나가 수상한 것, 신문사 사람끼리 몽골로 해외 취재를 떠난 것, 화보 촬영과 기사 작성, 신문사 MT 등. 그 당시에는 사람 간의 일과 내부 시정으로 너무 힘들어 괜히 했다 후회한 적도 많았습니다. 울기도 많이 울어 눈물도 지새운 밤이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잠깐 멈춰 제 발자취를 돌아보니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저라는 사람을 이루고 있더군요. 신문사 기자로 활동한 것을 후회할 일은 아마 평생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소중한 경험을 함께해 준, 이제는 졸업하여 더는 함께 학교생활을 할 수 없는 제68대 송민재 편집장님과 애뜻한 동기 유지우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같이 동고동락하며 수많은 감정 롤러코스터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저에게 웃음을 주었던 김경민, 전준혁 기자님과 신가은, 강예진, 김소희 수습기자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학교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오면서 신문사 역시 변화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신문사라고 하기에 본인 부끄러운 조총환 3명으로 시작하게 된 제 임기. 많은 이들이 나가고 본인 또한 지쳤을 텐데도 저를 믿고 같이 남아준 소중한 동기 김나연 기자님.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부편집장이자 큰 직책을 맡아준 제69대 김민재 부편집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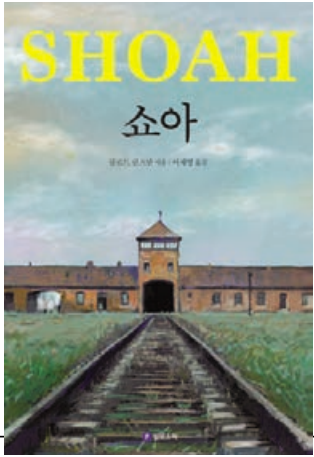
2023년에 서경대 신문에 입사해 함께 일했던 전대 편집장님들을 생각하면 저는 아직 한참 모자라지만 한 것 같습니다. 편집장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에 알기에 더욱 걱정됩니다. 아직도 하루에도 수십번씩 '내가 정말 이 자리에 있는 게 맞나?' 란 생각과 고민이 수도 없이 밀려옵니다. 능력은 물론이거니와 인간으로서도 아직 미성숙한 내가, 타인의 노고를 평가할 수 있느냐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해내야겠지요. 유려하고 수려한 글은 제겐 동경의 대상이거니와,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글을 써 내려가겠습니다. 서경대 신문사 제69대 편집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 지켜봐 주십시오.

독자 여러분, 2025년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김나연

오늘의 책

무참히 학살된 이들의 생생한 증언 - **쇼아** _클로드 란츠만



▲ 출처: 예스24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주도한 전대미문의 유대인 학살을 '홀로코스트'라고 부른다. 나치 독일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가스 트럭, 가스 열차, 그리고 6곳의 절멸 수용소를 가동하여 계획적인 대량 살인을 자행했다. 직접적인 피해자인 유대인들은 이 비극적 참상을 '쇼아'라고 부른다. 히브리어로 재앙, 파괴, 절멸을 뜻하는 단어다.

다큐멘터리 감독 클로드 란츠만은 십수년에 걸친 방대한 자료 조사와 증언을 수집

하여 9시간이 넘는 분량의 다큐멘터리, <쇼아>를 만들었다. <쇼아>는 쇼아가 벌어진 곳을 추적 및 구현하고 생존자와 목격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담아 이 사건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끼게 해준다. 해당 다큐멘터리는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다큐멘터리로써 기억되고 있다.

하지만 9시간 분량의 다큐멘터리를 모두 감상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때문에, 영화를 보지 않고도 쇼아를 느낄 수 있게 클로드 란츠만은 9시간의 다큐멘터리를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평화로워 보이는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수용소의 정문 그림이 그려져 있는 책, '쇼아'가 바로 그것이다.

'쇼아'는 실제 사건을 겪은 생존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것을 그대로 옮긴 책이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이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된다. 뿐만 아니라 인터뷰 중 기억이 되살아나 괴로워하는 인터뷰이의 모습까지 모두 기록했다. 그들의 생생한 증언은 너무나 자세한 탓에 텍스트를 읽을 때 자연스레 상상되는 이미지들이 너무나 사실적이고 끔찍해 견디기 어려울 정도였다. 상상만으로도 아찔한 참혹함은 그들은 직접 눈으로 목격했다고 생각하니 그들이 지녔을 아득한 절망감과 공포감이 어떨는지 짐작도 가지 않았다.

전준혁 기자

(nicejackkyhu@naver.com)

오늘의 전시회

외규, 145년의 역사를 따라서 - **외규장각 의궤 : 왕의 서고(書庫), 어진 세상을 꿈꾸다**



지난 11월 15일,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안에 새롭게 조성된 외규장각 의궤실이 공개됐다.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 군대에 의해 무단 반출됐다가 고 박병선 박사의 노력으로 2011년, 외규장각을 떠난 지 145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던 외규장각 의궤를 언젠가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이다.

의궤는 조선 왕실의 행사나 의식을 기록해 놓은 책으로, 외규장각은 정조가 1782년 강화도에 설립한 왕실 기록물을 보관하던 장소다. 왕이 보던 어람용 의궤는 대부분 외규장각에 보관됐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011년과 2022년 두 차례 특별전을 개최했지만, 의궤 속 다양한 내용을 관람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전용 공간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처음으로 의궤를 위한 별도의 전시실을 조성했다.

외규장각 의궤실은 한 번에 8책씩, 1년에 4번 교체해 연간 32책을 공개할 예정이다. 첫 전시에는 병자호란 이후 종묘의 신주를 새로 만들고 고친 일을 기록한 유일본 의궤 '종묘수리도감의궤'와 제작 당시의 책 표지가 그대로 남아 있는 어람용 의궤인 '장렬왕후존숭도감의궤'가 전시됐다.

"외규장각 의궤가 입고 있던 비단 옷을 재현하였습니다. 145년의 역사를 따라가 보세요." 의궤가 빼곡한 전시실 입구에서는 외규장각 의궤를 보러 온 사람들로 가득 찼다. 국적이 남노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전열된 의궤를 눈에 담고 있었다. 촘촘히 새겨진 기록에 모두가 푹 빠져 들었다.

디지털 서고에서는 디지털 책으로 재현해 놓은 의궤와 '도설(圖說) 아카이브'가 마련돼 있었다. 전열장에서는 넘겨 보지 못한 의궤를 '디지털 책'을 통해 그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특히 한문으로 되어 있는 의궤를 쉽게 풀이한 디지털 책을 체험

할 수 있었다. 특히 한문으로 되어 있는 의궤를 쉽게 풀이한 디지털 책을 체험

- 전시기간 : 2024. 11. 15. ~ 2027. 12. 31.
- 관람시간 : 월, 화, 목, 금, 일 10:00 ~ 18:00 / 수, 토 10:00 ~ 21:00
- *1월 1일, 설날, 추석 당일 휴관
- 전시장소 : 국립중앙박물관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7 상설전시실 2층, 서화관, 외규장각 의궤실
- 관람비용 : 무료

해 보려는 관람객들이 줄을 지었다. 원문 설명과 번역도 제공해 누구나 쉽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책장에서 미니 북을 골라 반침대에 올려놓으면 직접 한 장씩 넘길 수 있게 구현된 콘텐츠가 재생됐다. 콘텐츠는 총 3개로, '한 권으로 읽는 의궤: 의식의 궤', '어람용 의궤와 분상용 의궤 비교', '효충이 읽어주는 발인반차도'가 마련돼 있었다.

다양한 행사에 쓰이는 물품을 그려도 도설에 주목해 외규장각 의궤 속 3,800여 개의 도설을 기반으로 구축한 아카이브에 아 이들이 몰렸다. △기쁜 날의 장식 △슬픈 날의 장식 △글을 읽는 예절 △의궤 속 건축 △의궤 속 의복 △의궤 속 문양 △조선 선 가구 모음집 등 주제별로 도설을 모아 관심사에 따라 이리저리 화면을 눌러 보며 의궤 속 도설을 살펴볼 수 있었다.

오랜 역사를 지나 제자리를 찾은 의궤, 그 145년의 역사를 따라가 보자.

송민경 기자

(tildawn012@skuniv.ac.kr)

오늘의 장소

북한을 볼 수 있는 쉼터, 더불어 여유를 느낄 수 있는 - **임진각 수풀누리 공원**



출근길과 퇴근길, 숨 막히는 지옥철과 땀 뻘뻘 거리로 도로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내가 언제 넓은 하늘을 봤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도시의 뻘뻘하고 층 빌딩 사이로 잘려 나간 하늘과 복잡한 전선에 조각난 구름을 바라보며 답답함을 느끼던 나날들. 그 속에서, 어느새 드넓은 하늘을 마주하고 싶다는 바람이 내 마음속 작은 소망으로 자리 잡았다. 어께 위 무거운 짐들을 잠시 내려놓고 나를 되찾고 싶을 때 떠오르는 곳이 있다.

파주시 임진강과 맞닿아있는 '임진각 수풀누리 공원'은 우리나라 분단의 역사와 드넓은 자연을 담고 있는 특별한 곳이다. 분단의 아픔을 겪고 현실을 기억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곳에선 북한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가 마련돼 있어 우리나라의 역사와 평화를 되새길 기회를 제공한다.

이 공원의 가장 큰 특징은 '바람개비 동산'이다. 대형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수천 개의 바람개비가 바람을 타고 일제히 날아가

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형형색색의 바람개비들이 만들어내는 움직임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느껴진다.

또한, 방문객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도 마련되어 있다. 임진각 건물 1층에는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할 밀리터리 상품과 함께, 파주의 대표적인 명물인 장단공으로 만든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DMZ 특산품도 전시돼 있어 이곳만의 테마 상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이 공원의 전망대에 오르면, 평소에 멀게만 느껴졌던 이북 땅이 손 뻗으면 닿을 듯 가깝게 느껴진다. 임진강 뒤 펼쳐진 수평선 너머에 있는 누군가가 나와 비슷한 하늘을 보고, 같은 바람을 느끼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묘한 감정이 밀려왔다. 같은 하늘 아래 하나의 같은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을 그들의 존재는, 분명 내가 알지 못하는 생각과 꿈을 품고 있을 것이다.

바쁘고 답답한 일상 속을 벗어나 평화롭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임진각 수풀누리 공원을 추천한다. 언덕 위를 올라 하늘을 바라보며 자연과 역사, 그리고 평화의 의미를 함께 느껴보는 건 어떨까?

김소희 수습기자

(paa328@skuniv.ac.kr)

- 위치 : 경기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1154-1
- 운영시간 : 연중무휴

오늘의 영화

세대를 넘어 함께 성장하는 삶 - **인턴 (2015)**



▲ 출처: 네이버 영화

지난 2015년 개봉해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영화 '인턴'을 소개한다. 인턴 하면 보통 무엇이 떠오르는가? 필자는 사회 초년생,

대학생 인턴 등이 떠올랐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이 영화는 70세 노인의 인턴 생활을 그린다.

70세 은퇴 노인 '벤'은 어느 날 고령 인턴 프로그램 모집 공고를 발견한다. 벤은 형식적인 자기소개서 대신 동영상으로 지원하라는 공고를 착실히 따르고, 면접을 거쳐 마침내 인턴에 합격한다. 그가 합격한 곳은 여성 CEO '줄스'의 인터넷 의류 업체로, 창업 1년 반 만에 220명의 직원을 거느리게 된 성공 회사를 지녔다.

벤은 줄스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으로 배정되지만, 첫날부터 주어진 업무도 없이 무로하게 시간을 보낸다. 줄스 역시 고령의 인턴에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며 벤과의 관계는 별다른 것 없이 지나간다. 이에 벤은 사무실을 정리하거나 직원들에게 조언을 주는 등 자발적으로 필요한 일에 나서기 시작한다. 또 자을 복장이지만 정장을 고수하는 태도, 상사가 퇴근해야 자신도 퇴근하는 행동은 줄스의 눈에 띄고, 두 사람은 점차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관계를 맺는다.

강예진 수습기자

(jinvd@skuniv.ac.kr)

오늘의 스포츠

AI와 VR, 스포츠를 다시 쓰다



▲ 출처: SAS

첨단 과학 기술이 스포츠 전반에 걸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 과거 2016년에 축구 비디오 판독 시스템 'VAR'이 공식 도입되며 많은 반향을 일으켰던 것처럼, '가상현실(VR) 기술'과 '인공지능(AI) 기술'이 스포츠계의 현재와 미래를 바꾸고 있다. 이러한 혁신은 선수 훈련이나 경기 분석, 더 나아가 스포츠 팬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우선 선수들의 훈련 방식이 더욱 정밀하고 안전하게 변화하고 있다. 미국 알파인 스키 대표팀은 2018 평창 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최첨단 VR 시뮬레이터를 활용했다. 선수들은 대회 개최 2년 전부터 강원 정선의 알파인 코스를 그대로 재현한 영상을 통해 주 1회 이상 연습하며 실전에 대비했다. VR을 통해 날씨와 시간, 공간의 한계를

극복한 결과, 미국 알파인 스키팀은 본경기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한 연구진은 VR 훈련이 경기 상황을 미리 경험하고 익숙해지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운동뿐 아니라 심리적인 능력을 훈련해 성과 향상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했다. [참고: 머니투데이, 조선비즈]

경기 중에도 최첨단 기술이 활용되며 경기의 공정성을 높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심판 판정을 보조하는 AI 시스템이다. 지난해 한국 프로야구에 도입된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ABS)은 야구장에 설치된 카메라와 트랙킹 기술을 이용해 투구 궤적을 분석하고, 자동으로 스트라이크와 볼을 판별한다. 선수들은 "심판의 기분이나 성향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AI의 객관적인 판독 덕분에 경기 중 스트레스가 줄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출처: ZDNET]

최종적으로 팬들의 경기 관람 방식도 크게 달라졌다. 2016년 10월, 빅스VR이 처음으로 미국 프로농구 NBA 경기를 VR로 생중계한 이후, 많은 기업이 이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 애플 역시 '비전 프로'라는 VR 헤드셋을 출시하며 PGA 골프, MLB 야구 등을 가상현실로 중계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또한, 팬들이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초개인화' 서비스가 등장했다. 앱 '마스터스'는 생성형 AI 기술이 분석·가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골퍼 팬들에게 선수의 경기 영상, 분석 자료, 승률 예측 등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팬들은 자신이 직접 작성하는 보도기사보다 훨씬 빠르고 방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됐다. [참고: 연합뉴스, 동아일보]

이처럼 스포츠와 과학 기술의 결합은 선수와 팬 모두에게 몰입도 높은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건과할 수 없다. VR 및 AI 기반 시스템은 선수와 팬들의 생체 데이터, 선호도 등을 수집하면서 보안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제스포츠데이터위원회(ISDO)는 "AI 기반 스포츠 데이터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나친 기술 의존으로 인해 경기의 본질이 훼손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영국 스포츠윤리연구소(SES)는 "기술이 공정성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되어야 하며, 스포츠 정신을 훼손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김경민 기자

(anna2467@skuniv.ac.kr)

오늘의 음악

'알바들'에서 꽃길로, 배너의 진심이 피어나다

케이팝 세계에 발을 들이는 수많은 아이돌. 그러나 매해 데뷔하는 약 30팀의 보이그룹 중 살아남는 팀은 단 2~3팀뿐이다. JTBC <피크타임>은 데뷔 조를 뽑는 기존 아이돌 서바이벌과 달리, 이미 데뷔했지만 정상에 오르지 실패한 '망물'에게 날개를 달아준 프로그램이다. <피크타임>은 방영 당시 악의적인 편지를 최소화하고 참가자들의 분량을 공평하게 배분함으로써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이에 '착한 서바이벌'이라는 호평을 받기도 했다.



♪ <Blossom>

- 배너

▲ 출처: 클렘엔터테인먼트

"노을 진 하늘을 칠하듯이 / 널 보고만 있어도 내 가슴에 사랑이 피어나다 네게 물들어 / 내 안에 불어온다 너라는 계절이"

랜덤 플레이리스트를 재생하다 우연히 귀에 꽂힌 곡이다. 아름다운 멜로디와 감미로운 음색에 흠뻑 흠뻑해 보고, 배너의 사연을 알게 됐다. 배경을 알고 나니 노래를 부르는 목소리가 너무나 진심으로 다가왔다. 알바들을 거쳐 결국 정상에 오른 배너. 그들의 진심이 더 멀리 달길 기도한다.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출연 팀은 일명 '알바들'이라 불리는 VANNER(이하 배너)였다. 데뷔 직후 코로나로 인해 불확실한 미래 속 멤버들이 모두 아르바이트하며 활동했기 때문이다. 리더 태환은 SNS, 팬카페, 유튜브 영상 촬영 및 편집 등 회사의 업무까지 도맡기도 했다. 이들의 소속사는 대표 1명과 멤버 5명이 전부였기 때문에, 대표 또한 밤에는 수입을 위해 대리운전을 했을 정도다.

한 인터뷰에서 멤버 혜성은 "아르바이트하면서 고생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스태프들의 말에 더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다"며, 프로그램을 하며 "남과의 경쟁이 아닌 스스로와의 경쟁으로 한계를 넘는 계기가 됐다"고 답변했다. [참고: 스포츠경향]

무대에 대한 다섯 멤버의 열정은 심사위원과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배너는 출연 팀 중 모든 무대에서 '올픽(AI Pick)'을 받은 유일한 팀이었다. 이들은 결국 <피크타임>의 우승을 거머쥐며 상금 3억을 받게 됐다.

중영 후 앨범 'BURN'으로 컴백한 배너는 데뷔 2,066일 만에 첫 1위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승리의 'Victory'와 깃발의 'Banner'의 합성어인 VANNER. 그들은 마침내 이름대로 정상에 승리의 깃발을 꽂고 말았다.

김나연 기자

(nykim0130@skuniv.ac.kr)